

광주FC, 전주성서 올해 첫 승리 축포 쏠까

23일 전북과 2라운드 맞대결
지난 시즌 원정 징크스 격파
거스 포엣 상대 매운 맛 기대
중양 자원 충분한 휴식 완료



올해 세 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광주FC가 전북 현대모터스를 상대로 첫승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 14년 만에 전주성 징크스를 격파한 만큼 자신감을 바탕으로 축포를 터트리겠다는 각오다.

광주FC는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리그에서는 첫 원정길에 오르는 광주FC다.

광주FC는 지난 15일 수원FC와 개막전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밀어붙였으나 마무리에 실패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올해 아시아 무대에서도 1무 1패를 기록한 광주FC는 아직 첫승을 신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광주FC는 지난 11일 산둥 타이산에 1-3으로 패배했고, 18일 부리람 유나이티드 FC와는 2-2로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광주FC는 산둥 타이산의 2024-2025



광주FC가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FC 박태준(오른쪽)이 지난 1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리람 유나이티드 FC와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최종전에서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출전 포기에 따라 경기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식 기록은 2무로 무패가 됐지만 이번 전북전 승리로 상승세를 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번 원정에서 광주FC는 자신감을 원동력으로 삼을 전망이다. 창단 이후 전북을 상대로 원정에서 1무 11패에 그치며

징크스에 시달렸으나 지난해 8월 1-0으로 첫승을 챙겼다. 당시 선제골 겸 결승골의 주인공인 자시르 아사니는 올해도 든든히 광주FC의 측면을 책임지고 있다.

또 가장 최근 실전인 부리람 유나이티드 FC와 경기에서도 전반에만 두 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에 오후성의 멀티골이 터지며 극적인 무승부로 분위기를 끌

어올렸다.

광주FC는 거스 포엣 신임 감독 체제의 전북과는 이번이 첫 맞대결이지만 K리그1과 ACL2를 병행하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에게 타 구단에 비해 전략 분석이 수월하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다.

특히 전북 상대 라인업 변화가 크지 않은 부분은 공략점이다. 지난해 주축 선수

들이 대부분 유지됐고 수비의 최우진과 김영빈, 송범근, 공격의 안드레아 콤파뇨 정도가 새 얼굴이다. 다만 안드레아 콤파뇨의 파괴력과 박진섭의 공격 가담 능력은 경계 요소다. 광주FC는 매 경기 변화의 폭이 큰 상황이다. 체력 안배와 부상 방지를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하기도 했지만 선수단 구성 자체가 크게 바뀌었고, 잦은 부상자 발생이라는 변수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정효 감독은 직전 경기에서 박정인과 이스나이루 헤이스, 이강현, 문민서, 이민기, 민상기 등의 출전 시간을 아꼈다. 특히 공수를 가리지 않고 중양 자원들이 충분히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점도 기대 요소다. 광주FC는 현재 가브리엘 티그랑과 황재환, 빅토, 최경록, 유제호, 브루노 올리베이라, 변준수, 진시우 등이 대거 이탈한 상황이다. 이정효 감독이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선수가 있을 수 있다.

광주FC는 ACLE 일정으로 인해 시즌 초반부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부상자가 속출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6일 간격으로 한숨을 돌릴 시기를 앞두고 올해 첫 축포를 터트리길 주목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FC, 산둥 출전 포기로 16강 상대 변경

아시아 무대 동아시아 예선
당초 5위서 4위로 순위 상승
조호르 대신 고베와 맞대결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에 진출한 광주FC의 상대가 조호르 다룰 탁집 FC에서 비셀 고베로 변경됐다. 산둥 타이산이 대회 출전을 포기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순위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AFC는 2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가와사키 프론타레, 조호르 다룰 탁집 FC, 광주FC, 비셀 고베, 부리람 유나이티드 FC, 상하이 선화, 상하이 하이강이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둥 타이산의 대회 출전 포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둥 타이산은 지난 19일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HDFC와 리그 스테이지 최종전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킥오프 약 2시간을 앞두고 선수단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숙소에서 공향으로 철수했다.

AFC는 대회 규정에 따라 산둥 타이산이 한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대회 전체를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또 산둥 타이산이 치른 7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화하고 리그 스테이지 순위를 매겼다.

광주FC는 산둥 타이산에 1-3으로 패배했던 만큼 승점에 변화가 없었지만 승리를 챙겼던 비셀 고베와 포항스틸러스, 가와사키 프론타레는 3점, 무승부를 거뒀던 요코하마 F. 마리노스는 1점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조호르 다룰 탁집 FC도 4위에서 3위로 올라섰고 비셀 고베는 3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16강이 동아시아 1위와 8위, 2위와 7위, 3위와 6위, 4위와 5위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만큼 광주FC의 16강 대진도 변경됐다. 당초 상대로 결정됐던 조호르 다룰 탁집 FC가 아닌 비셀 고베를 상대하며 1차전은 다음 달 3-5일 중 미사키공원 경기장, 2차전은 10-12일 중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FC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FC는 리그 스테이지에서 조호르 다룰 탁집 FC에 3-1 완승을 거뒀지만 비셀 고베에는 0-2로 완패했다. 전력에서도 조호르 다룰 탁집 FC보다 비셀 고베가 더 강력한 선수층을 갖추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동 거리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조호르는 비행기와 버스로 약 10시간을 이동해야 하지만 고베는 약 3시간이면 도착한다. 훈련장과 숙소 등 여건도 말레이시아보다는 일본이나은 환경이다.

한편 AFC는 산둥 타이산의 경기장 내 정치적 메시지 및 도발 행위 금지 위반과 대회 출전 포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산둥 타이산에는 벌금과 AFC 주관 대회 출전 자격 박탈, 상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둥 타이산의 일부 팬들은 지난 11일 지난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리그 스테이지 7차전에서 광주FC 팬들을 향해 고(故) 전두환씨와 김일성 북한 주석, 김정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흔들며 보이머 논란을 일으켰다.

한규빈 기자

전남 선수단, 멈추지 않는 금빛 질주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3일차
전남 금 16·銀 4·銅 7... 종합 8위
강다현 알파인 스키 4관왕 완성
예카테리나·조다는 동반 3관왕
광주 김규원은 스노보드 동메달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남 선수단이 금빛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대회 3일차인 20일 금메달 6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추가하며 금메달 1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종합 순위 8위에 올랐다.

'알파인 스키 유망주' 강다현(여수삼일 중 3년)은 4관왕을 차지했다. 앞서 여자 15세 이하부 대회전과 슈퍼대회전에서 정상에 올랐던 강다현은 이날 강원 평창 모나 용평 스키장에서 열린 회전(1분18초05)과 복합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다.

'푸른 눈의 태극전사'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전남도체육회)는 바이애슬론 3관왕에 올랐다. 아바쿠모바는 이날 강원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여자 일반부 집단출발 12.5km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스프린트 7.5km와 혼성 계주에 이어 다시 한번 금빛 질주를 펼쳤다.

티모페이 랍신과 알렉산드로 스타로두베츠(이상 전남도체육회)는 남자 일반부 집단출발 15km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는 무더기 금메달이 나왔다. 조다은(화순제일중 3년)은 이날 강원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 열린 여자 15세 이하부 15km 계



여수삼일중 강다현이 20일 강원 평창 모나 용평 스키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알파인 스키 여자 15세 이하부 대회전과 슈퍼대회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4관왕을 차지한 뒤 미소짓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주에서 소지희(전남체고 1년), 장원지(화순제일중 1년)와 56분00초7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앞서 프리 7.5km와 복합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한 조다은은 3관왕에 등극했다.

김찬우와 문승환(이상 화순초 5년), 백계영, 최지호(이상 화순초 6년)는 남자 12세 이하부 8km 계주(28분17초7)에서, 이윤주(다시초 6년)와 이지호(화순초 5년), 최보유(화순초 6년)는 여자 12세 이하부 6km 계주(23분59초3)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수확했다. 앞서 클래식 2.5km와 프리 3km, 복합에서 1위를 차지한 이윤주는 4관왕에 올랐다.

전다경(전남체고 1년), 김은아, 김민희(이상 곡성고 2년)는 여자 18세 이하부 15km 계주에서 은메달을, 성주호(화순고 1년), 정한성(보성다향고 1년), 성준상, 임준범(이상 전남체고 1년)이 남자 18세 이하부 계주 30km에서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사건 경기에서만 동메달 두 개를 수확했던 광주 선수단에서는 대회 개막 이후 첫 메달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김규원(광주알펜시아스노보드스키클럽)은 이날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일반부 평행대회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규빈 기자